

‘아특별 불발’ 민주당 책임론 부상

“당 지도부 정치력 한계 드러낸 것”...지역사회 큰 파장
2월 국회처리도 불투명...법안화 아문당 주요사업 중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 개정안이 지난 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문화계 등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연말, 늦어도 새해 초 아특별 개정안이 통과돼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기대했던 지역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들과 문화·사회단체들은 아특별 개정안이 1월 본회의에서 처리

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0일 “이번에 아특별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 지원이 끊겨 아시아문화전당의 올해 주요 사업은 모두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아시아문화전당 관계자는 “아특별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아시아문화원 등 내부조직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병훈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이 대표 발의한 아특별 개정안 처리 불발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특별안은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국민의힘 저지에

맞서 여당이 강행 처리했고 이후 법사위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똑같은 물리력이 예상됐다.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당의 단독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새해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고 이 때문에 아특별 개정안이 1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일 법사위 안건상정 배제 이전부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특별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발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 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민예총 등 80여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가 아특별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려스러운 점은 1월 임시국회가 폐회되면 여야가 4월 보궐선거 체제로 전환되면서 격렬한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 자칫 아특별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안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면에 계속 /정진타기자



공공 언 영산강 광주·전남지역의 아침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등 북극발 한파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나주 영산동 황포돛배 선착장 주변 영산강의 물이 꽁꽁 얼어 있다. 영산강 중류 구간 물줄기 전체가 얼어 겨울 들어 처음으로 얼어 황포돛배 유람선도 운항을 중단했다. /김영근기자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올해 사업 성패 판가름

2021 광주·전남 현안, 이것만은 꼭..

<5>完>흑산공항 건설

대체 편입지역 변경안 제출, 착공 예산 69억원 확보

환경 문제로 번번이 발목을 잡으며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 사업의 운명은 올해 어떤 형태로든 판가름날 전망이다. 최근 전남도가 국립공원 대체 편입지역 변경안을 제출, 심의 통과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중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위한 심의와 관계부처 총괄협의를 이뤄질 예정이다.

총괄협의회에서는 안건이 정리된 무등산·월출산·대백산·한라산·북한산·주왕산 등 6개 공원에 대해 먼저 심의할 계획이다.

신안 흑산공항 부지가 포함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도 대체 편입지역 변경안이 제출된 만큼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지난해 10월 흑산공항 부지(1.21㎢)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대체부지인 신안군 갯벌(5.32㎢)을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예정대로 협의가 이뤄지면 다음달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국립공원원칙변경 확정·고시될 전망이다.

대체부지 편입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0월 흑산공항 건설의 첫 삽을 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2년여 공사 기간을 거쳐 2023년 개항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전남 블루이코노미’ 관광 분야 대표 사업인 흑산공항은 총사업비 1천833억원을 들여 흑산면 예리 일원에 1.2km 규모의 활주로를 갖춘 소형 항공기(50석) 운항이 가능한 공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올해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 69억원(착공 관련 기본시설비)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 흑산권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선박으로 연간 결항률이 52일에 달한다. 1년 중 평균 110일은 기상여건 등으로 만조 이상 통제되고 있다. 흑산도는 수려한 다도해 경관을 자랑하는 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지만 접근성 부족으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서울-흑산간 소요 시간은 기존 7시간 이상에서 1시간대로 단축된다. 또 생산유발효과 1천80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66억원, 취업유발효과 1천226명 등이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총괄협의회와 국립공원심의위에서 대체 편입지역이 통과되면 흑산공항은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다”며 “환경부 등에서도 대체 편입지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후성기자

광주 코로나 확진 다시 두 자릿수

효정요양병원발 115명...사망 1명 추가 모두 10명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새해 첫 날부터 7일간 두 자릿 수를 유지하다 지난 8일 6명으로 떨어지면서 주춤했으나, 주말 사이 또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서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광산구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족과 지인 등에게 n차 감염 또한 이어지고 있어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히 요구된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지난 9일 이 병원 입원환자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80대가 사망하면서 방역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망자 A씨

는 80대로, 광주 1169번이다. 이로써 광주지역 누적 사망자 수는 모두 10명이다. 광주시는 10일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9-10일 이틀간 38명(이날 오후 6시 기준)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 확진자들의 감염원을 보면, 효정요양병원 관련 115명, 에버그린요양원 관련 75명, 청사교회 관련 72명, BTJ 열방센터 관련 65명, 광주 양동고속철도 관련 12명, 전북 김장모임 관련 7명 등이다.

효정요양병원에서는 지난 2일 종사자 7명이 확진된 이후 의료진과 직원, 입소

환자 등 115명(환자 78, 직원 25, 가족·지인 등 기타 12)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방역당국은 음성 판정을 받은 이 병원의 직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비인두도말 PCR 검사를 3일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일 3차 PCR 검사에서 총 289명(환자 200, 직원 87) 중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도내 4명(나주 2명, 목포 1명, 보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604번-607번으로 분류됐다. 이로써 전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07명(지역감염 545명, 해외유입 62명)으로 늘었다. /정겨울·임후성기자

오늘 낮부터 영상권 회복

북극발 한파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며 맹추위가 이어진 가운데 11일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다 차츰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이다.

1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1일 광주·전남은 영하 5도-2도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은 영상권(0-4도)을 회복하겠다. 이번 한파는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풀리겠다.

12일 아침최저기온은 영하5도, 낮최고기온 3도로 영상권을 유지하다 13일은 낮최고기온이 9도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14-15일에는 낮기온이 10도를 넘어설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그러다 17일부터 다시 아침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추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수기자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2weeks
고함양 고함양 레티놀은 눈가 및 입가 주름 완화를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연 40~59세 성인 여성 대상(2019.09.16~10.17) 4주간(4주)피부양호도조사
고함양정실 080-023-5454 | www.iope.com